

01 교회소식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2019년 부활절 행사 소식과 호남지방회에서 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린 '성령충만기도회'.

02 생명의 말씀

온전한 사랑

천국에 대해 아는 것보다 영적 사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에 할례해 사랑을 이루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03 기획특집

“믿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맹장염을 깨끗이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된 양복남 권사의 간증.

04 간증

죽음 직전의 셀리악 병에서...

WCDN본부 회장 채윤석 박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셀리악 병을 치료받은 파키스탄 신시아 자매의 치유 사례에 대해 전한다.

# 만민뉴스

제885호 2019년 4월 2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 2019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성찬식 거행



▲ 2018년 부활절 성찬식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4월 21일 주일 대예배를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2019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린다.

특별히 부활절 저녁예배 설교 전, 전 성도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과 '여호수아 군대'라는 곡으로 특송을 올림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과 축복에 동참케 하신 주님께 뜨겁게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또한 부활절 저녁예배 설교 후에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요 6:53~55)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축복된 시간을 갖는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내용이 담긴 사복음서를 묵상하며 한 주간 경건하게 보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매일 밤 다니엘철야를 통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새로운 마

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힘썼다. 만민기도원에서 고난주간을 맞아 오전 집회를 기도회로 드렸는데, 많은 성도가 참석해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되새기며 통회 자복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4월 19일(금)에는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이날 밤 11시에 시작되는 금요철야예배에는 2부 시 2019 부활절 공연, 「잊지 못할 사랑」이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본당 특설무대에 올려졌다.

한편, 부활절을 앞둔 18일(목)과 19일(금)에는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예쁘게 장식하여 교회 인근 관공서 및 노인정에 전달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했다.

## 호남지방회 주최, 이수진 목사 초청 '성령충만기도회'



지난 4월 15일 저녁 7시 30분, 예수교연합성결회 호남지방회 주최 '성령충만기도회'가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광주만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호남지방회 소속 광주, 여수, 무안, 익산,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만민교회 외에도 중부지방회와 영남지방회 지교회 주의 종들과 일꾼 및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참석하였다.

호남지방회 부회장 박형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성령충만기도회는 서기 김명술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박영록 성도(영화배우)와 정수현 집사·이은유 자매(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의 특송이 있었다.

강사 이수진 목사는 “축복의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뜻

과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군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며, “감사하게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권능으로 보장해 주고 계신다. 그동안 성경 말씀대로 선과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성결의 기회로 삼아 이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축복을 받은 만큼 그릇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 후, '사명 감당'과 '온 집에 충성' 등을 위해 기도했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 후 환자기도가 진행되었다. 이수진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많은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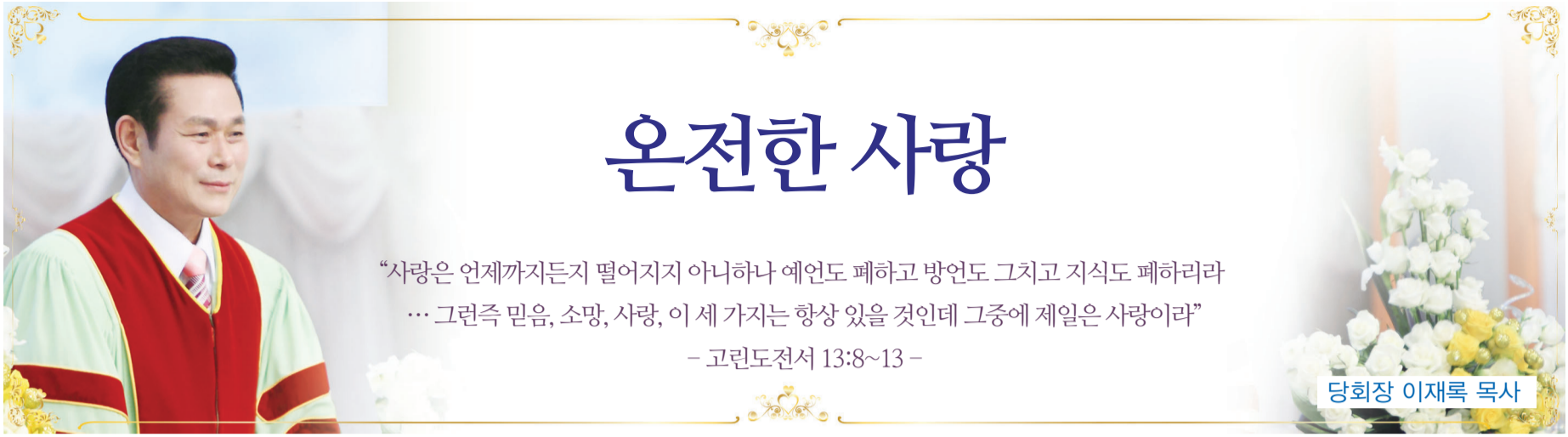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광주 이만철 성도는 시력이 좋아져 전과 달리 뚜렷이 보게 됐으며, 고재현 집사는 갓난아이 때 잃어버린 왼쪽 귀의 청력이 60여 년 만에 살아났다(우측 상단 사진).

밀양 김정화 권사는 오십견을, 무안 최정숙 집사는 목 디스크를, 대전 권운자 집사는 무릎관절염을, 서울 배정녀 권사는 방아쇠수지를, 이 외에도 각종 질병과 통증, 사고후유증 등을 치료받아 간증하였다.

호남지방회 부회장 박형렬 목사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분이 치료받았으며,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힘써 이뤄 나가는 호남지방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온전한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고린도전서 13:8~1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한 가지씩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곳은 발로 밟고 다니는 길조차 정금으로 되어 있으니 값비싼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돈 등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것,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천국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져가면 가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 1. 천국에서도 필요한 '영적인 사랑'

장차 천국에 가면 세상에 속한 육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계 21:1). 육의 것이란 썩고 변질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부귀나 명예, 권세 등 모든 것이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지지요(시 103:15). 또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죄와 어둠도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10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령한 것인데 왜 이것도 사라진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영의 세계인 천국은 온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언한다 해도 장차 천국에서 알고 깨닫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지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치 않습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나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또 문화적 차이로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설령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를 쓴다 해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기는 어렵고, 자신의 마음을 백 퍼센트 말로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염려도 없고, 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해나 편견이 생기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배우지만 그것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있는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하지만 천국에는 사랑만 있기에 이런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곧 예언이나 방언, 지식 등은 영에 속한 것이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결국 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죄를 버리고 마음에 할례하여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의 좋은 점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듯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천국에는 이런 기쁨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직 돈에 대한 가치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오백 원짜리 동전과 오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선택하라면 동전을 집어 듭니다. 오백 원짜리 동전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사본 경험이 있어서 그 가치를 알지만, 지폐의 가치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알고 깨닫는 깊이도 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요. 장차 천국에 이르면 무한히 넓고 신비로운 영의 세계와 모든 것이 운행되는 원리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고전 13:11).

천국에는 어둠이나 염려, 근심이 없으며 선과 사랑만 있기에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섬길 수 있지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이처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믿음의 각 단계를 자녀, 아이, 청년, 아비에 비유한 것이 나옵니다. 자녀나 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은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할 힘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믿음이 되고 더 장성하여 아비의 믿음이 되면 말과 생각,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차원도 달라지지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어둠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아비의 믿음을 이뤘다 해도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비하면 역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 3.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랑

어린아이의 때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인 듯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는 허상이며,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닮은 모형에 불과하지요(대상 29:15).

그림자를 보면 형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지 짐작하게 하는 그림자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같은 이 땅의 삶이 지나면 그때에는 실체인 천국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영의 세계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천국에 가면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처럼 뚜렷이 알게 되지요(고전 13:12).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천 년 전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은, 청동, 철 등의 금속판을 갈아 광을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영안이 열려서 생생하게 천국을 보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다 해도 직접 보는 것에 비한다면 그것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세세한 것까지라도 뚜렷하게 보고 피부로 느끼며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광대하고 위대하시구나.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4.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매우 귀한 덕목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기에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이며, 응답의 열쇠이지요. 또 소망을 가짐으로써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함으로 죄를 버리고 성결되기 위해 힘쓰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믿음과 소망은 인간 경작을 받을 동안만 필요한 것일 뿐, 천국에 가면 사랑만 남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미 천국에 있으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 없으며, 소망 역시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간 만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십년 동안 못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뒤에 만난 것과 십년 후에 극적으로 만난 것과는 그 감격과 기쁨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십년 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마주하면서도 계속 그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진정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장성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사무치도록 뵈고 싶어지지요.

이처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좁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힘들다, 괴롭다” 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행한 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 7:21).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죄를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만큼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데,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낙원이나 새 예루살렘 등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구분됩니다.

낙원은 성경에 나오는 한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 처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것이 없는 경우이지요. 하나님을 믿은 후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낙원보다는 훨씬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성결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처소가 있습니다.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 처소입니다(계 21, 22장).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으로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원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이 곧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팔복이 임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 된 자격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죄를 버릴 수 있으니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무수히 얻고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고 계십니다.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수돌기염(맹장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양복남 권사 (52세, 5가나안선교회)



지난 3월 22일(금), 오른쪽 옆구리가 결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통증은 심해져 오른쪽 아랫배까지 빠근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식욕도 별로 없었지요. 되돌아보니 한 주간 전부터 몸이 몹시 피곤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25일(월),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충수돌기가 염증으로 부어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충수돌기의 크기는 0.7cm 이하인데 저는 1.26cm로 커져 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몸살처럼 오한이 들고 주변에서 제게 혈색이 너무 안 좋다고 했지요. 평소 갖가지 질병을 믿음으로 치료받아 간증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자문할 때가 있었는데, 병명을 듣고 나니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되지’ 하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화) 오전, 저는 만민기도원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복님 원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 최근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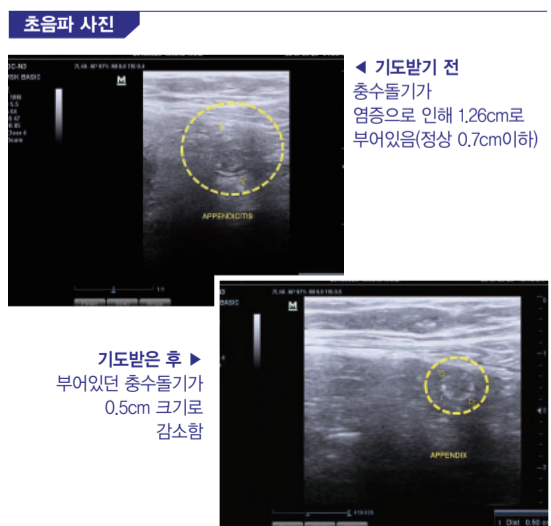
모든 일에 기쁨과 소망이 없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져 힘이 들었지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뜻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변화되고 더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그저 자리를 지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제 신앙에 스스로 놀려 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마음 깊이 깨우쳐지면서 저는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개하였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교역자회 회장)의 기도를 받았는데 온몸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다니엘철야 기도회 중에도 이수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제게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때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에는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다음 날도 아무런 통증 없이 보낼 수 있었지요. 치료받았

다는 확신이 들어 28일(목),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 보니 충수돌기의 크기가 0.5cm로 줄어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몸이 너무 가볍고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실지라도 늘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좋은 점을 기억하시어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항상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음파 사진  
 ◀ 기도받기 전 충수돌기가 염증으로 인해 1.26cm로 부어있음(정상 0.7cm이하)

기도받은 후 ▶ 부어있던 충수돌기가 0.5cm 크기로 감소함



# ‘셀리악’ 질병을 치료받은 신시아



**채운석 박사**  
(WCDN본부 회장, 의학박사)

■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초교파적인 국제 기독교의사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된 사실을 객관적인 의학 자료로 뒷받침해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이 참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WCDN 국제 기독교의학 콘퍼런스' ▶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느끼는 고소한 맛과 쫄득한 식감은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고소한 빵맛을 느끼게 하며 행복을 주는 물질이라도 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머나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셀리악’ 병(celiac disease)은 밀가루 안에 들어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소장 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장내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변이 묽고 색이 옅으며, 양이 많고 나쁜 냄새가 나며, 자주 방귀를 끼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배가 부풀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로, 피부 발진, 빈혈, 비타민 결핍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키스탄 라호르 지역에 신시아라는 소녀(7세)가 살고 있었다. 1999년 6월 15일 새벽, 신시아가 갑자기 구토를 심하게 했지만 잠시 후 괜찮아지자 가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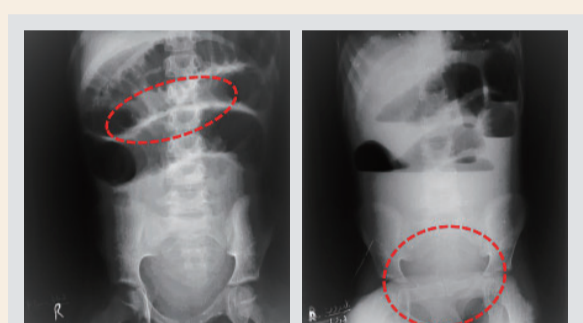
며칠 후 다시 설사까지 동반한 구토가 시작되었다. 심한 복통과 함께 심지어 과란, 연두, 노란색 물까지 토해 내더니 혈변까지 나왔다. 결국 신시아는 라호르 라시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3일 정도 치료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배가 볼록하게 불러 있는 반면 영양실조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 셀리악 병이 있을 때 생기는 피부염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우).

그러나 퇴원 후 일주일 뒤인 6월 28일(추정) 신시아는 다시 입원하게 되었고, 이때는 전신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설사, 구토, 직장출혈 등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 셀리악 병이며 대장 부위가 막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게다가 막힌 부위를 풀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신시아의 전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몸무게도 11kg(표준 몸무게 35kg)밖에 되지 않아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에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장이 소동되지 못하고 막혀서 물고기 뼈 모양의 음영을 보이고 있으며(좌), 왼쪽 직장 부위에 공기음영이 보이지 않고 있어 대장폐색이 의심된다.

병원에서는 막힌 부위가 풀리기만을 기대하며, 수액 공급 및 항생제 치료 등 일반적인 치료만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만 갈 뿐 장시간 먹지 못해 신시아는 입원할 당시 몸무게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가족과 빼만 남은 피골상점이었다.

주치의는 입원 후 24일이 지나도 장이 풀리지 않자 의사로서 자신이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어 신시아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가 되신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소망이 있었다.

신시아의 부친 윌슨 존 길 목사는 그동안 한국에 계신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왔기에 ‘그분께 기도받으면 딸이 나오리라’는 믿음이 왔다.

때마침 신시아의 언니 마리아가 신앙 성장과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 1999년 7월 22일, 윌슨 존 길 목사는 한국에 있는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신시아의 입원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언니 마리아편에 보냈다.

7월 23일 한국시간 밤 10시 50분경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 당회장 이재록 목사

는 신시아의 사진 위에 기도를 해 주었고, 바로 그 순간 파키스탄 라호르 라시드 병원에 있는 신시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동일 시간 파키스탄 현지 7시 50분경(썸머 타임 적용) 신시아의 몸 상태가 급속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신시아는 먼저 입맛이 돌아오고 복통이 사라졌으며 얼굴이 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렀던 배가 가라앉았다. 신속하게 먹는 양이 늘었고, 힘이 주어져 3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치료받은 당시 신시아의 모습

이처럼 신시아가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회복되어 퇴원하자, 윌슨 존 길 목사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어 교회는 급속히 부흥하였다. 목사님 가족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재록 목사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신시아에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실한 비전이 있다. 하나님 권능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시아는 라호르 엘리트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전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